



기회의 땅, 베트남 Inside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붐'이 화제다. 베트남에 투자한 나라 가운데 한국이 1위가 되었고, 베트남의 실질적인 개방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채 20년이 안되어 주 베트남 한국인이 약 8~9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주한 베트남인도 7만 명에 육박, 베트남 열풍이 허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자면을 통해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의 매력과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회의 땅, 베트남 바로알기

공식 국호는 베트남(Viet Nam),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월남(越南)이라는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월남이라는 말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의 시조(응우옌 폭 아인) 나라를 설립하고 청나라에 국호를 대월(大越)로 쓰겠다고 했으나, 청나라가 월남(越南)으로 칭하라 한데서 유래 되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어 표기인 '베트남'으로 부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에 대해 귀에 익은 말들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전해준 콩까이, 나트랑, 베트남 등이 있다. 이것은 베트남어 알파벳을 영어식으로 발음하여 파생된 잘못된 발음이다. 나트랑은 (Nha Trang) 베트남 어로 '나 짱'으로 발음해야 하고, '월남 콩까이'도 정확하게 발음하면 '곤 가이 베트남'(Con Gai Viet Nam/베트남 아가씨)이라고 말해야 한다. 사족 하나. 전쟁에서 핀 애절한 이국간의 사랑을 그렸던 드라마 '머니먼 송바강'을 기억하시는지 극중에서 박중훈의 첫사랑으로 분했던 흰 아오자이(Ao Dai)의 Ms. Thuy의 모습이 전형적인 베트남 아가씨 '곤 가이 베트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베트남의 국가색

베트남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진입국 중국은 AD 3세기 한 무제 때 베트남을 점령한 이래 1,200년 이상을 지배해 왔는데, 이는 베트남의 풍부한 식량과 교역의 용이성 때문이었다. 긴 중국점령기를 지나 비로소 11세기 초에 독립한 베트남은 지금 국토의 북부 지역에 자체 왕국을 수립하게 된다. 독립 이후 베트남은 영토 확장을 계속하여 남쪽에 있는 Hue, Saigon 등으로 뻗어 나갔고, 결코 굶힐 줄 모르는 죽음을 무릅쓴 항쟁으로 인하여 한번도 대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강인한 나라로 기록되었다. 더불어 전쟁을 워낙 많이 치르다 보니 베트남의 여권(女權)은 자연스럽게 강해졌다. 현재 국회의원의 30%가 여성이라는 수치를 통해 베트남의 여권강세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베트남의 역사는 베트남만의 국가적 특성을 만들어 냈다. 미국도 손을 들고 나간 나라, 이곳에 오래 있으면 결코 이 나라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나라, 그래서 싸우지 말고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실리를 찾아가야만 하는 나라, 그래서 이곳의 회사나 기관의 요인들을 만나면,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 상호이익(Mutual benefit),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 베트남 일반현황

- 전체 총인구 : 총 8,350만 명 ■ 일인당 GNP : 약 700달러
- 국토면적 : 33만 km² (한반도의 1.5배), 국토의 종단 거리는 2,000Km ■ 산업구조 : 1차산업(79%), 2차산업(18%), 3차산업(3%)
- 전화가입자수 : 1,000만 명 (유선/25%, 무선/75%로 전화 보유율은 46%) 전국 8,155개 읍·면 지역까지 100% 전화가 연결 되었음
- 무선전화 방식 : GSM, CDMA(SKT/LG가 공동 투자) ■ 인터넷가입자 : 약 500만 명(실제 약 1,700만 명이 사용/국민의 약 20%)
- 공식국기명 : 베트남사회주의인민공화국 ■ 국가수반 : 대통령이나, 최고실권자는 당서기장이고 수상이 경제와 치안을 담당
- 정당 : 공산당 1당 체제이나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음 ■ 군 체제 : 3군 체제로 전체 군인 수는 120만 명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베트남의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남과 북이 통일되었다. 이때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의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자 사회주의 국가들이 군수물자와 식량을 원조해 주겠다고 했으나, 호찌민(胡志明) 주석은 “우리나라의 전쟁이니 물질적인 원조보다는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베트남은 어려운 시기에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유학 보냈으며, 전쟁 중에도 대학생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 통일 후 인재난을 미리 대비케 하였다.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67년부터 부족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1989년까지도 수입을 계속했으나 1989년 말 '농업의 자영화' 정책을 결정 1990년부터 식량난을 일시에 해결하고 바로 쌀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1986년 말 도이 머이(Doi Moi/쇄신) 정책 실시로 개방을 시작하였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투자법과 투자여건을 계속 보완해 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베트남 전 국민의 끊임 없는 노력한 결과로 지금은 연간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일반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면서도 비슷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오래 동안 지배 혹은 전쟁을 했거나 지배를 했던 나라들과(프랑스, 일본, 미국과 한국 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실리를

찾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앞서 말했듯 인재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로 인해 문맹률이 10% 미만이며 우리나라 못지않게 항학열이 높다. 베트남 국민성향 역시 부자런하며 2~3모작 실리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따지고 들며 자부심이 아주 강하다. 또한 일평생을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옷 두 벌과 타이어로 만든 두 컬러의 신발로 살다 가신 분, 적군인 미군들조차도 존경했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 호찌민을 국부로 섬기는 나라다.

이곳 베트남은 분명 우리 한국 기업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GDP 성장률이 연평균 8% 정도의 고도 성장 지속, WTO 가입 ASEAN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 급격한 사회 변화, 100만 불이 넘는 고급주택 즐비, 연평균 700불 정도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수준 등 이곳 베트남은 변화의 물결이 급격하게 출렁이고 있다. 이에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남부 호치민 지역에 약 7만여 명, 북부 하노이 지역에 약 1만 5천여 명의 한국인이 상주하는 등 기회의 나라 베트남으로의 진출은 현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도 이곳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INKE 지부가 설립되어 앞으로 우리 벤처기업인들의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도전과 성취를 즐기는 대한민국 벤처기업인들이여, 어서 빨리 기회의 땅 베트남 시장에서 큰 활약을 펼쳐시길!”

➔ INKE HANOI 지부 연락처

HAN Tech & Consult Ltd.
 # 104 Toserco Van Phuc, 2 Nui Truc, Kim Ma, Hanoi, Vietnam 전화 : 84-4-846-5758, 팩스 : 84-4-846-5761
 사장 이상모 (하노이 의장) : E-mail : smlee@hn.vnn.vn, smlee814@hotmail.com M/p : 84-90-340-1117
 부사장 김교호 (부의장) : E-mail : kimgyoho@hn.vnn.vn, kimgycho@hdtmail.com M/P : 84-91-336-6530